

국경봉쇄 길어지면서 ‘절량세대’ 속출...더 못 버티고 떠돌이 생활

빛 독촉 시달리다 결국 집 팔고 거리로...소식통 "버틸 수 있는 한계 넘은 사람들 많아져"
데일리 NK[2021.06.16 2:41 오후]

북한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을 목적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무역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절량(絶糧)세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사로 수입을 내던 상인들이 절량세대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는 전언이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6일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6월에 접어들면서 생활이 어려워 집을 팔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5월이면 국경 봉쇄가 풀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봉쇄가 길어지면서 더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들어온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북한의 장사꾼들은 대개 돈을 빌려 물건을 떼다 팔고 그 수익으로 후에 갚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갑자기 국경이 봉쇄되면서 물건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장사꾼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지속적인 빛 독촉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에는 중국산 물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도매상이 밀수꾼과 선수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난 바 있다.

北, 후방공급 앞장선 무산광산 높이 평가... “자력갱생 정신 발휘”

데일리 NK[2021.06.16 8:00 오전]

최근 북한 함경북도의 무산광산연합기업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해 온실농장을 꾸리고 광산 노동자들의 식생활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6일 데일리 NK에 “무산광산연합기업소는 온실농장을 꾸려 어려운 시기 광산 노동자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이달 초순 상반기 경제활동 평가에서 정부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무산광산연합기업소 후방부는 그간 비밀 박막뿐만 아니라 다른 자재들도 자력으로 마련해 채소 온실을 튼튼히 꾸려 광산 노동자들에게 여러 차례 생산물을 나눠주는 등 먹거리 보장에 힘을 쏟았다. 이에 북한 당국은 올해 상반기 모든 연합기업소들의 경제활동을 총화하면서 주민들의 식생활 문제에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후방사업을 잘한 무산광산 연합기업소를 높이 평가했다는 전언이다.

쌀값 폭등에 흔들리는 평양 민심...부랴부랴 ‘배급 주겠다’ 포치

소식통 "4월부터 배급 없었다...지난 7일 입쌀, 감자 등 10일치 배급 계획 하달"

"평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가져다 먹는 극빈층 눈에 띄게 많아져" 데일리 NK[2021.06.11 8:00 오전]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양시 배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휘발유, 경유를 비롯해 쌀과 옥수수 등 곡물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평양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하자 당국이 부랴부랴 배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전언이다. 10일 데일리 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월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 즈음 열흘치 배급이 나온 후 두 달 동안 평양 배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평양 시내 배급소에 보관돼 있는 식량도 없는 상태다.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폐쇄한 후 3월부터 3개월 동안 평양시 배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비교적 주기적으로 배급이 진행돼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배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교화소 등 구금시설 출소자로 당장 생계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지방에서 평양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안전원(경찰)과 군인들도 배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에서도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아 군 간부 본인에게 할당된 배급만 지급하고 가족들의 할당량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회 보호계층은 물론이고 국가기관 소속자들도 경우에 따라 평양에 거주하면서도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당(黨)이나 국가보위성 등 특수기관에 소속된 간부들은 지속 배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춘궁기(春窮期)에 들어서면서 식량 수급 상황이 안 좋아져 현재 시장에서의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봉쇄 이후에도 북한의 쌀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지난 3월부터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 1kg에 3천 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초부터 북한 쌀 가격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평양의 쌀 가격은 1kg당 5000원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일주일도 안 돼 22%(2일(4100원)) 폭등한 수치다. 옥수수 가격은 국경봉쇄 이후 지속 상승했지만 그래도 2천 원 초반대의 가격이 유지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평양에서 옥수수 1kg에 3000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北, 장벽·고압선 설치 속도 끌어올리려 '내각 돌격대'까지 국경 파견

양강도 서북부에 기술노동자 2000여명 내려와...한 달 만에 설치 끝내겠다는 '총성의 편지' 올려
데일리 NK [2021.06.11 2:24 오후]

북한이 중국과 맞닿은 국경 전 구간에 콘크리트 장벽과 고압선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양강도 일부 국경 지역에 '내각 돌격대'까지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11일 데일리 NK에 "지난 3일 양강도 후창(김형직군) 신파(김정숙군), 삼수 쪽에 내각 돌격대라는 이름으로 1800~2000여명 정도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토목, 도로, 건축 등을 담당하고 있는 내각 산하 기관들에 소속된 노동자들로, 노동성이 선발해 인원을 보장했다. 특히 노동성은 외부세계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국경에 인원을 파견하는 만큼 청년동맹(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직맹(조선 직업총동맹) 등 당 외곽기구에서 조직적으로 추천을 받아 사상적으로도 무장된 기술인력들을 골라서 내보냈다는 전언이다. 내각 돌격대는 첫 파견지인 양강도 김형직·김정숙·삼수군에서 한 달 만에 장벽과 고압선 설치 공사를 끝내겠다는 결의를 하고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내각 돌격대는 내려오기 전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전염병 방역에서는 해이도 방심도 금물이다. 우리가 내려가 원수님께서 심려하시는 국경연선 전염병 방역을 위해 한달 내로 방탄벽을 설치 완수하겠다’고 맹세하는 충성의 편지를 올렸다”고 말했다. 내각 돌격대는 현재 국경에 설치하고 있는 콘크리트 장벽을 ‘방탄벽’이라고 지칭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올린 편지에도 “국경 전 구간에 방탄벽을 쌓는 사업에서 내각 돌격대가 기술적, 사상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내각 돌격대가 이렇듯 속도전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금 도(道)에서 도 간 운송이나 유동을 다 풀어 누구든 국경에 올 수 있고, 그래서 경비 근무가 잘되고 있는 곳들을 제외하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무인지경부터 빨리 공사를 끝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양강도 서북부 국경은 통신 기지국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지대이지만, 강폭이 좁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인한 국경 봉쇄에도 지금껏 밀수 등 불법행위가 지속 이뤄졌다고 한다. 이에 내각 돌격대가 가장 먼저 이곳에 내려와 공사 속도를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생계난 겪는 군관들 제대 희망...국방성 “반역행위” 저지 나서

데일리 NK [2021.06.11 12:51 오후]

최근 북한 군인 가족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제대를 원하는 군관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방성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1일 데일리 NK에 “최근 우리나라 군관들이 배급을 정량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사정과 관련해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지기 어려운 군관들 속에서 돈을 고이고(바치고)서라도 제대하려는 현상들이 늘어나 6월 초 국방성의 시급한 방침이 내려왔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군관 가족들의 생활이 헤어나오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군관들 사이에서 제대를 희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청진시에 주둔하는 고사총부대와 그 주변 부대의 군관 가족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식량 사정이 악화해 더는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난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농촌이든 탄광이든 어디든 가겠다면서 제대한 군관들도 많고, 지금도 제대를 기다리는 군관들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왔다.

소식통은 “부대에서 제대를 시켜주지 않자 멀리 있는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군 상층부에 돈을 고이고 제대 명령을 받으려는 군관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로 인해 간부 배치도 어려워지고 있어 국방성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을 포착한 국방성은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개인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반역행위와 같다” “상급에서 돈을 받아먹고 이에 동조하는 것 역시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행위와 같다”고 지적했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더욱이 국방성은 군관들의 제대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부터 최근까지 제대한 모든 군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돈을 받고 군관 들을 제대시켜준 군 간부들도 파악하고 처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북한, ‘적화 통일’ 포기?... “오히려 대남 공작 인원 확충”

문서 위조 전문 314 연락소 1200→3000 명으로...소식통 “南 혁명은 중핵적인 사업”
데일리 NK[2021.06.09 4:26 오후]

8 차 당(黨)대회에서 개정된 북한 노동당 규약이 최근 공개되면서 ‘적화 통일 포기’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대남(對南) 공작 인원을 확충하는 등 오히려 관련 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 일 데일리 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중앙당 문화교류국 산하 314 연락소를 확대·개편했다. 특이한 점은 인력을 기존 1200 명에서 3000 명으로 늘렸다.

여기서 314 연락소는 여권 위조를 중심으로 남한 자료 및 공작 장비 연구·조달을 담당하는 전문 기술기관이다. 때문에 이번 314 연락소 인원 확충을 두고 내부에서는 “당에서 얼마나 남조선(남한) 혁명과 우리민족끼리의 조국통일을 중핵적인 사업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소식통은 “문화교류국 소속 다른 연락소의 인원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면서 “적화통일은 민족 최대의 과업이라는 것이 당의 방침인 셈”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당에서는 두 동강 난 조국을 후대에 물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민족끼리 분단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는 일념에는 변함이 없다는 교양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서 ‘우리민족끼리’는 “공화국 정부(북한)를 지지·찬동하는 남조선과 해외의 모든 혁명적이고 애국적 역량(역량)과 함께 한다”는 의미다. 친북 인사 포섭 및 세력 확대를 꾀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연락소 개편 과정에서 김일성 시대의 대남 공작 사업을 본받아 구체적이고 더욱 세밀하게 조직할 데 대한 당의 방침도 있었다고 한다. 소식통은 “장군님(김정일) 때는 자금이 부족해서 남조선 혁명을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수령님(김일성) 때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개편 작업이 완료한 후 대남 공작에 관한 업무를 대대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한 외화 환율, 화폐개혁 후 최대 폭락...무역 재개 기대 하락 영향

평양 위안화 환율 660 원, 달러 환율 5990 원으로 '뚝'...소식통 "쌀값은 1kg 5000 원으로 상승" 데일리 NK[2021.06.08 4:27 오후]

북한 원 달러 및 위안화 환율이 또다시 폭락했다. 북한 당국이 신규 워크(수출입 허가권) 발급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통제 조치를 내놓자 관련 기관이나 개인들이 외화를 급하게 매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취재한 결과 8 일 오전 평양의 원·위안화 환율은 660 원으로 지난 2 일 가격인 965 원보다 32% 폭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의주(평안북도)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같은 날 신의주의 위안화 환율은 680 원으로 나타났다. 역시 30%가 하락한 것이다. 북한 원·달러 환율의 경우 위안화보다 하락폭은 작았지만 역시 지역별로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같은 날 조사된 달러당 거래 가격은 평양 5990 원, 신의주 5950 원으로 엿새 만에 각각 16, 17% 떨어졌다. 달러와 위안화 모두 2009 년 화폐개혁 이후 최단기간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지난해 4 분기에도 북한의 외화 환율이 큰폭으로 하락했지만 10 월 10 일 당창건일 직전부터 약 두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 이번보다는 하락 속도가 완만하게 나타났다. 오히려 지난 4 월 신규 워크 발급 신청 공고가 하달된 이후 달러와 위안화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특히 워크 발급 직전인 지난달 18 일 원·달러 환율은 7000 원선을 돌파했고 위안화도 1000 원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규 워크 발급과 함께 무역 재개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환율이 갑자기 폭락한 것은 최근 새롭게 하달된 북한 당국의 무역 통제 조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북한시장 동향			
Update : 21-06-08			
기준=원	평양	신의주	혜산
시장환율(1달러)	5,990	5,950	5,500
쌀값	5,000	4,900	4,800